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은 세계가 코로나 19라는 불청객으로 중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연일 2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신실하신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사역 이야기

한국어 선교학 석사(K-MAIS) 과정의 첫 번째 수업 ‘선교학 역사’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게 끝났습니다. 본 과정에 참여한 6명 중 5명의 선교사님들은 현재 이스라엘, 태국, 페낭 등지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도인 형제입니다. 두 번째 수업에는 모두 7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역에 묻혀 있게 되면 쉽게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론적인 부분이 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둔화된 모습을 새롭게 갈고 닦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교(MBTS)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수업과 신학교 활동을 연말까지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교육적 효과는 낮아지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 소그룹은 매주 주일 오후 3시 ZOOM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냅니다. 각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 저희를 매우 안타깝게 합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 이야기

저와 아내는 8월 3일 1차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미 약속된 아내를 데리고 갈다가 안내처에 문의했더니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가능하다고 하여 저도 함께 접종을 하였습니다. 잠시 진통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회복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송이는 방학기간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동안 외로움으로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잘 극복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송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첫째, 박현희 선교사 왼쪽 발목이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말레이시아 코로나 19 속히 안정을 찾기 위해

셋째, 한국어 선교학 석사 과정에 10명의 학생이 모집되기 위해

넷째, 예송이 3-1학기 학업과 과대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2021년8월6일

폐낭에서 고인섭 박현희 선교사 드림